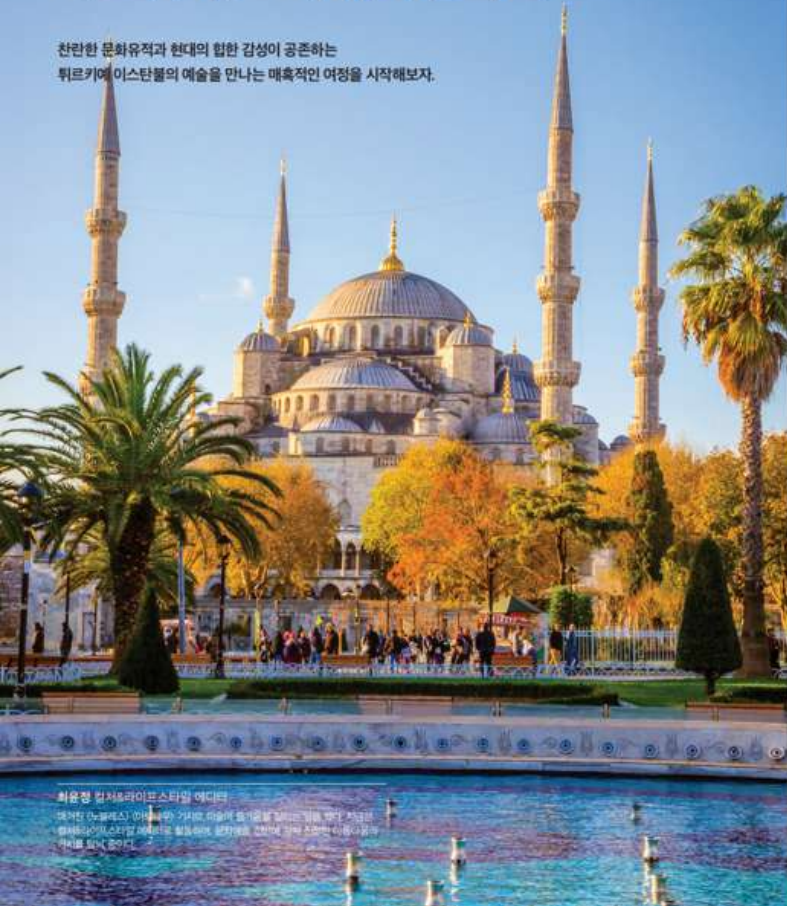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튀르키예를 만나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현대의 합한 감성이 공존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예술을 만나는 매력적인 여정을 시작해보자.



최윤정 컬처&라이프스타일 에디터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유산'을 통해 보호된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튀르키예의 막동하는 예술

알마 건 터키는 국호를 '타키인의 땅'을 뜻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했다. 튀르키예는 터키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함축하는 단어로, 자국민에게는 익숙한 국명이다. 우리는 튀르키예라는 새로운 이름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과거를 품고 다없이 현대적이고 신선한 예술적 시도를 펼치는 변화된 오늘을 발견한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해 빛을獨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기원전 667년경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이슬람교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2000여 년 동안 로마와 비잔틴, 오스만 제국을 거치며 튀르키예 최대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대립과 융합을 거쳐 새로운 예술의 탄생으로 이어진 이스탄불의 낯설지만 오묘한 매력은 여행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이스탄불은 구스카와 신사가, 아시아 지역으로 나뉜다. 그중 역사적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구시가 술탄 아흐메트 지역은 이스탄불에서 반드시 둘러야 하는 여행지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Sultan Ahmed Camii)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아야소피아(Aya Sofia) 성당의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모스크 내부에는 푸른색 이즈닉 타일 2만 2000여 개와 유리창으로 장식했다. 모스크 안 백면을 뒤덮은 화려한 푸른색 타일 아래 블루 모스크로 더 유명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자 이슬람 사원인 아야소피아는 360년 콘스탄티누스 2세 때 만들었다가, 대륙동 등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지시로 5년간 재건축 공사 끝에 537년 지금의 아야소피아가 완공되었다. 아야소피아라는 이름은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으로, '절대적 존재가 허락한 지혜'로 완성한 건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건설한 이후 1000년간

교회로 이용하다가 1453년 오스만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모스크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종교 건축물에서 보기 힘든 비잔틴제국의 가톨릭, 오스만제국의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코란>의 구절을 적은 지름 31m, 높이 55m 규모의 돔 천장과 1층에 자리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내는 미흐라브(Mihrab),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이 앉아 있는 설교대 민바르(Minbar)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는 '축축한 기둥(땀 흘리는 기둥)'이 있다. 기둥에 뿔려 있는 구멍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한 바퀴를 돌리며 소원을 빌면 엄지손가락이 축축해지면서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2층은 여성의 기도 공간으로 쓰였다.

영화 <인페르노>에서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장한 천재 과학자가 바이러스를 숨겨놓은 장소로 등장한 예레바탄 사라이(Yerebatan Sarayı)는 로마인이 건설한 도시 기반 시설 중 하나로, '지하 궁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지하 저수지였다. 길이 140m, 너비 70m, 높이 9m에 이르는 건물로, 무려 8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붉은 조명을 받아 빛나는 예레바탄 사라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하 궁전이라는 별칭에 수긍하게 된다. 내부에는 그리스 로마 신전에 사용한 기둥 336개가 세워져 있는데, 제국의 각지에 산재하던 신전이나 여러 용도의 건물에서 징발한 건축 자재를 사용해 모양이 각기 다르다. 저수조 북서쪽에 있는 두 기둥 아래 받침대로 쓰인 매두사 머리 2개는 로마 시대 조각의 예술적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걸작이다.

이 외에 구시가지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오스만튀르크인이 최초로 건설한 궁전인 톱카프 궁전(Topkapı Palace), 196년 로마 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지은 고대 검투 경기장 터인 히포드롬 광장(Hippodrome Square) 등 고대 유적지가 즐비하다.



술탄 아예메트 모스크.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성 요르그스 성당 내부.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이스탄불에서 가장 핫한 동네, 발라트

현재 이스탄불 여행지 중 가장 '힙'한 동네는 발라트(Balat)다. 이스탄불 파티흐(Fatih) 지구에 위치한 발라트는 그리스어로 '궁전'이라는 뜻이다. 6세기에 블라헤르나이 궁전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발라트는 과거 유대인이 거주하던 부유한 동네였으나 1894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 빈민촌이 형성되었다. 최근 유네스코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파른 계단과 어우러진 빼곡히 들어선 집은 미술관과 공방, 개성 넘치는 카페로 변신하고 있다.形形色색 아름다운 건물과 거리 덕분에 세계 곳곳의 사진 전문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발라트에서 눈여겨볼 곳 중 하나이자 동방정교회의 대표적인 대성당으로 꼽히는 성 요르그스 성당(Aya Yorgi)은 일반적으로 비잔티움 양식의 정교회 성당과는 다르게 신고전주의 영향을 받았다. 건물 외관은 간소하지만 실내는 화려하게 장식했다.

파나르 그리스정교 대학교(Phanar Greek Orthodox College)는 이스탄불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육 시설 중 하나로, 그리스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다. 1454년에 세운 붉은 벽돌 건물로, '붉은 성' 또는 '붉은 학교'라고 한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큰 돔은 천문학 수업의 관측소로



발라트 거리 풍경.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쓰이며, 내부에는 대형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이스탄불에 있는 그리스정교회 학교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이스탄불 구시가의 북서쪽 테오도시우스 성벽과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에디르네 문 근처에 위치하는 카리에 박물관(Kariye Museum)의 원래 이름은 '코라 수도원'이다. 코라(Chora)는 그리스어로 '도시의 외곽'을 뜻하는데, 이처럼 박물관은 이스탄불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5세기 초에는 정교회의 예배당으로, 오스만 왕조 시대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다가 튀르키예로부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종교 박물관이 되었다. 성모마리아와 예수 등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자의 모습을 표현한 비잔틴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Theodosian Walls)은 413년에 비잔틴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건설한 삼중으로 된 성벽이다. 덕분에 수 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해 '난공불락의 도시'라는 칭호를 얻었다. 해자를 갖춘 성벽으로, 내벽과 외벽에 망루를 96개씩 설치해 적을 견제하기 용이했다. 오스만튀르크족에게 함락당할 때도 성을 파괴해서 정복한 것이 아닌 한 병사가 실수로 문을 열어서였다고 한다. 여전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성벽 위에서 아름다운 구시가 마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w

MORE TIP FOR MZ



MZ 입맛을 사로잡은 카이마크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천상의 맛'이라고 극찬한 카이마크(Kaymak)는 우유의 지방을 모아 굳혀 크림처럼 만든 디저트로, 튀르키예인의 아침 식사에서 필수 메뉴다. 최상급 버터의 고소함과 생크림의 부드러움을 합친 맛이라고 회자되는 카이마크는 tvN 예능 프로그램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즌 2> 첫 에피소드의 메뉴로 소개되었으며, 국내에도 카이마크 맛집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카이마크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이틀에 걸쳐 40~90℃에 끓여 4~5시간 식히는 과정을 반복해 크림을 모으고, 냉장 보관한 뒤 소금으로 간해 완성한다. 현지인은 튀르키예식 베이글인 시미트나 바게트처럼 담백한 빵에 꿀을 뿌린 카이마크를 잼처럼 발라 먹는다.

이stanbul의 컬처 루트

아타튀르크 컬처 센터에서 갈라타 포트까지 이어지는 베을루 컬처 로드를 따라 튀르키예 문화 예술을 경험해보자.



색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 이스탄불은 구역마다 찬란한 역사를 담은 보물 창고 입과 동시에 예술이 탄생하는 아티신의 현장이다.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두 도시에서 컬처 루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그중 이스탄불 컬처 루트는 베을루 컬처 로드 프로젝트(Beyoğlu Culture Project)라고 한다. 아타튀르크 컬처 센터(Atatürk Kültür Merkezi, AKM)에서 이스티클랄 거리를 지나 갈라타 포트까지 약 4.1km의 루트가 베을루의 지구에 속한다. 베을루 문화 루트에서는 AKM과 더불어 작년 3월 복원 및 개관한 아틀라스 극장과 시네마 박물관, 튀르키예 전통 군무 '세마' 공연을 볼 수 있는 갈라타 메블레미로지 등 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복원한 수많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을 흠어볼 수 있다. 지난해 가을, AKM 재개관으로 본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린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를 기념해 202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베을루 컬처 루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본 축제에는 고전예술, 디지털 및 영화, 음악, 무용 및 문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1969년 개관 당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아트 센터였던 AKM은 1970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77년 재건해 2008년까지 터키 공연 예술계의 허브 역할을 수

최윤정 컬처&라이프스타일 에디터

행했다. 그러다 10년 가까이 운영을 중단했다가 전 건물을 철거하고, 약 2년 반의 리모델링을 마친 다음 2021년 10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약 20억 리라(1500억원)를 투자해 재건한 AKM은 오페라하우스와 극장 홀, 아트 갤러리 및 다목적 홀을 갖췄다. 그 외에 어린이 아트 센터, 음악 녹음 스튜디오 및 미술,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들 다루는 도서관을 갖춰 이스탄불 시민의 문화 센터 역할을 한다.

1948년 개관한 아틀라스 극장(Atlas Movie Theater)은 2019년부터 2년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무대부터 좌석, 음향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새 단장을 마쳤다. 대형 무대는 물론 라이브 시어터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다목적 시설을 마련했다. 아틀라스 극장의 건물은 숄탄 압둘라 지즈(Abdulaziz)가 봉지하던 1870년대에 지은 것으로, 19세기 말 유행한 네오클래식 양식의 파사드 형태가 인상적이다. 독특한 천장 장식, 회반죽을 덧댄 양자 표현법, 대리석으로 된 벽난로와 바닥 등 수많은 건축 요소가 그 시대의 예술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새 시리즈 <우이살라르(Uysallar)>의 초연 행사 등 시상회와 페스티벌의 장소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아틀라스 극장과 같은 건물에 마련된 시네마 박물관(The Museum of Cinema)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튀르키예 영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은 디지털 자료 보관소로, 튀르키예 영화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영화 시음시스 등 튀르키예 영화와 관련된 특별한 자료와 국내의 수상 이력 및 트로피 등이 교육 자료로 박물관에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w



아타튀르크 컬처 센터.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아틀라스 극장 내부.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